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2/24~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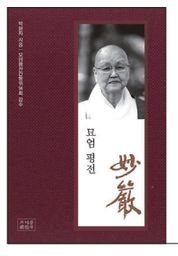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무언화	덕조	조계종출판사	6	어른이 되는 흐름의 기술	마가	불광출판사
2	명상 마음치유의 길	정운스님	참글세상	7	지금 이대로 좋다	법륜	정토
3	성철스님의 백일법문과 유식	김명우	장경각	8	AWAKENING(깨달음 내눈 뜨기)	VEN. POMINYUN SUNIM	정토
4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 불교심리학	보만	불광출판사	9	업이란 무엇인가	히라오카사토시	운주사
5	눈부신 하루를 시작하는 한마디	법상/용정운	조계종출판사	10	낡은 옷을 벗어라	법정	불교신문사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궁금하세요 우리절집	고연희 엮음	운주사	6	설전	성철,법정/원택	책읽는섬
2	한글아함경	고익진 엮음	담마아카데미	7	법구경	식카와띠 위뭘라나니	담마디빠
3	요가디피카	아혠가/현천 역	선요가	8	수행 초탈인가 치유인가	박찬욱 기획/한자경 편집	운주사
4	네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	각묵옮김	초기불전연구원	9	탁! 깨달음의 대화	법륜	정토출판
5	부처님의 당부	비구 보디/등현 감수	사유수	10	불멸(1)	이각 지음	지혜의눈

선·교·율로 비구니 승가의 길을 열다



묘엄평전
박원자 지음
묘엄평전간행위원회 감수
조계종출판사
3만8000원

묘엄 스님 발자취 담은 첫 평전
3년간 자료·증언 바탕으로 집필
수행자 귀착점 '마음수행' 강조
"부처님 뵙고 나 자신 찾으라"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한국불교 최초의 비구니 율사이자 근현대 비구니 승가 위상을 재정립한 세주당 묘엄 스님(1932~2011)의 삶과 사상을 집대성한 책이 출간됐다. 〈묘엄 평전〉은 스님의 출가에서 열반까지, 치열했던 구도 여정과 근현대 비구니 승가를 일궈낸 원력을 600여 쪽의 방대한 기록으로 담아냈다.

묘엄 스님의 삶은 그 시작부터 한국불교의 거목들과 맞닿아 있다. 청담 스님의 딸이자 성철 스님의 첫 비구니 제자로 가르침을 받았고, 운허 스님에게 경전을 배웠으며 자운 스님에게 전계를 받아 최초의 비구니 율사가 됐다. 또 청담·성철 스님이 이끈 봉암사 결사에도 비구니 중 가장 처음으로 동참했다.

이러한 불연(佛緣)은 엄혹한 시대에서 잉태됐다. 묘엄 스님은 집안의 대(代)를 잇기 위해 눈물로 애걸하는 어머니의 청을 끝내 거부하지 못한 청담 스님의 '하룻밤 인연'으로 태어났다. 어린 인순은 부모의 이혼으로 호적상 '사생아'로 기록됐고, 호적이 없는 여자아이는 위안부로 끌려간다는 소문에 청담 스님이 머물던 대승사로 보내졌다.

성철 스님은 '비천해 보이는 여자 중은 안 될 것'이라고 당차게 말하는 인순에게 '승중(당시 스님을 부르던 말)계의 혁명을 일으키는 큰 중이 되라'고 권하며 제자로 받아들였다. 1945년 음력 5월 5일, 열네 살 인순은 그렇게 묘엄 스님이 됐다.

이후 묘엄 스님은 열네 살에 시작한 화두 참구를 평생 이어갔고, 운허 스님에게 교학을 배워 당대 최고의 비구니 강백으로 거듭났으며, 지천명의 나이에 자운 스님으로 전계를 받아 한국불교 최초의 비구니 율사가 됐다. 또 동학사와 운문사 강원에서 후학을 가르쳤고, 봉녕사 강원·봉녕선원·금강율원을 설립해 비구니 승가의 선·교·율맥을 반석 위에 세웠다.

박원자 작가는 3년에 걸친 집필 과정에서 수많은 자료와 증언을 모아 묘엄 스님의 삶을 복원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면서도 그 중심에 놓인 선·교·율이라는 수행의 축을 또렷하게 드러낸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도 확인했다. 묘엄 스님을 비롯한 40여 대중이 1952년 봉암사 결사 정신을 이은 창원 성주사 결사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박원자 작가는 "한국전쟁 중에도 성주사는 봉암사 결사 방식 그대로 정진했고, 묘엄 스님은 온 마음을 다해 '이뭣고' 화두에 정진했다"고 밝혔다.

본각 스님(전 중앙승가대 교수)은 "성주사 결사는 출가 정신을 확고히 하고 수행 전통을 세우려 애쓴 선각자적 모습을 보여 준다"며 "비구니 승단이 출가 승단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을 이룬 결사"라고 평가했다.

아버지 청담 스님과 '출가자'로서의 만남도 기록했다. '출가'를 아버지에게서 받은 최고·최대의 정신적 유산이라 여긴 묘엄 스님이지만, 아버지의 변변찮은 공양에 콧등이 시큰해지고 구겨진 광목 장삼에 눈물을 흘린 딸이기도 했다. 비구니계의 큰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었던 청담 스님. 묘엄 스님은 훗날 청담 스님과의 영원한 작별을 회고하며 "너무 슬펐다"고 말했다.



묘엄 스님(오른쪽)이 대학 시절 청담 스님, 언니와 함께 촬영한 사진.
사진 제공=조계종출판사



묘엄 스님은 2017년 명사 법계를 품수했다.
사진 제공=조계종출판사



묘엄평전간행위원회장 진상 스님(봉녕사 주지, 가운데)과 간사 도연 스님(봉녕사승가대학 학감), 박원자 작가는 12월 18일 간담회를 열고 〈묘엄 평전〉 출간 소식을 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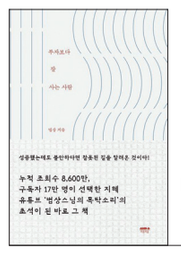
묘엄평전간행위원회장 진상 스님(봉녕사 주지)은 12월 18일 열린 출판간담회에서 "스님께서는 수행자의 귀착점이 '마음공부'이고, 선교율이 이를 떠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평생 강조하셨다"며 "스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총체적으로 다룬 이번 평전이 후학들의 수행과 교육에 지침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음공부는 상대적인 부처님을 뵙고 절대적인 나 자신을 찾는 것이다. 자기를 단속하여 인천의 사표가 되고 생사에 자재하여 중생을 제도하라."

묘엄 스님이 임종 때 남긴 이 유훈은 누구나 부처의 성품이 갖추어져 있음을 철저히 믿고 생사발심해서 수행하라는 당부이자 스님의 생애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다.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는 치사에서 "비록 묘엄 스님은 적멸에 드셨으나 그 청정한 사상과 고결한 법향은 꺼짐 없이 빛나며 불교중흥의 길을 걷는 모든 수행자들의 영원한 지침이 되고 있다"고 기렸다.

마음의 부(富)를 묻다



부자보다 잘 사는 사람
법상 스님 지음
마음의숲
1만8500원

'목탁소리' 지도법사 법상 스님이 2006년 출간한 〈부자보다는 잘 사는 사람이 되라〉의 전면 개정판을 펴냈다.

〈부자보다 잘 사는 사람〉은 스님이 20대 후반이던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쓴 글을 다듬은 것으로, 청년 수행자의 풋풋함 감성은 유지하되 문장의 결을 다듬고 보완했다. 법상 스님은 "20대의 나와 중년의 내가 만들어내는 합동 연주"라고 표현했다.

스님은 책에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마음을 비우며 충만하게 사는 길을 안내한다. 하루를 온전히 살아내는 작은 실천, 삶 속에서 진정한 풍요를 발견하는 방법을 전하며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잘 사는 길'을 제시한다.

"문제는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만족하고 사느냐에 있다. 내 행복의 지수는 그대로 내 만족의 지수이지 소유의 지수가 아니다. 소유를 줄이고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더없는 행복의 비결이다."

법상 스님은 마음공부를 통해 행복해지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쉽고 실천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스님의 글을 읽고 뜻을 모은 이들인 웹사이트 '목탁소리'를 만들었다. 실시간으로 열리는 부산 목탁소리 토요법회와 상주 대원정사 일요법회에는 매회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다.

현재 대원정사와 목탁소리 주지로, 유튜브 '법상 스님의 목탁소리'를 통해 17만여 구독자들의 마음공부를 이끌고 있다. 최근 서울에 '목탁소리休'라는 선명상센터를 개원했다.

유튜브 전법 활동으로 포교의 폭을 넓힌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11월 제22회 대원상 출가 부문 특별상을 수상했다.

여수령 기자

인내와 통찰 체득하는 '선명상'



아메리칸 선명상: 통찰
영화 스님 지음
현안 스님 번역
위앙북스
1만8000원

"선명상의 목표는 자신을 훈련하여 집중력을 높이고 일심(一心)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 영화 선사의 한국인 제자들이 설립한 위앙북스가 펴낸 두 번째 책이다. 2024년 출간된 〈영화 스님의 선명상〉(운주사)의 후속편으로, 선명상의 실제 지침을 통해 고통과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법을 소개하고 인내와 통찰을 체득하는 길을 안내한다. 독자들이 궁금증을 바탕으로 구성된 문답과 수행자들의 체험담도 확인할 수 있다.

명원 스님(광륜사 주지)은 추천사에서 "영화 선사의 가르침을 선과 염불을 함께 닦는 수행법으로, 청화 큰스님의 염불선과의 일맥상통한다"며 "이 책의 가르침으로 현대인들이 번뇌와 고통을 여의고, 선열과 법락을 함께 누리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번역을 맡은 현안 스님은 "선의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 일상에서 수행의 힘을 키우고 삶의 변화를 얻고자 하는 이들에게 유익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여수령 기자

2026 병오년
뜨거운 열정! 꺾이지 않는 도전! 쉼없는 전진!
대한불교조계종
백 담 사
사부대중 일동
강원도 인제군 북면 백담로 746
■ 종무소 전화 033)462-6969 | www.baekdamsa.or.kr
■ 템플스테이 연수원 전화 033)462-5565,5035 | baekdam6969@daum.net


※광고 홈페이지 QR. 수익 일부는 AI전법에 활용됩니다.